

露西亞의 思想史上 헤겔主義의 存在 (六)

(-양코·야-넬說에 依하야-)

田元培

四

그러나 베른스키-[벨린스키]가 몸소指摘한 似而非 헤-겔主義나 스타케빗치의 審美的 世界觀은 모다 헤-겔哲學의 眞實한 □□에 的中한 것이 아니었다. 베린스키-는 永遠한 鬪士요, 피히테와 가튼 鬪爭과 自由의 天才요, 그의 헤-겔□는 露西亞의 現實--그는 後日에 이것을 □笑하고 否定하였지만--과의 和□에 對한 □□한 □□의 表現이었다. 스타케빗치는 로고스□□과 □□의 思辨的 □□을 現實的으로 □論하려는 直覺的 氣質을 가진 人間이었다. 베린스키-와 스타케빗치의 두 사람은 存在者의 □와 力을 잇고 絶 思想의 思想家보다도 더 □□□은 사람이었다.

미하엘·바쿠닌(一八二四-一八七六)은 露西亞 헤-겔主義의 □□□□에 잇서서 가장 만흔 影響을 준 歷史的 決定的 時機의 開拓者였다. 그는 得初의 偉대한 露西亞 □□家인 同時에 思想的 □然에 陶醉한 靑年이요, 또 辨證法을 自己의 □命에 肉化시킨 人間이었다. 露西亞에 잇서서의 自由問題는 眞實로 바쿠닌과 同時에 現實化하였든 것이다. 베린스키-도 自由의 問題를 提出한 사람이었다. 그러나 그는 이 問題를 헤-겔의 原理로써 解決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. 베린스키-는 一八四一年 以後부터는 어디까지든지 自己의 文藝批評과 社會主義의 理想에 忠實하였스며 지금까지의 自己의 浪漫主義的 靑春時代를 붓그러워하였고 이 「더러운」 露西亞의 世界를 讚美한 것을 붓그러워하였다.

여기서 바쿠닌을 다시 前□하야 헤-겔의 엔티크로페지를 革命의 問答示□□□이 秘所에 □化시켰다. 다시 말하면 □□의 反逆的 精神의 形而上學--이것이 □바쿠닌의 헤-겔主義였다. 바쿠닌의 全生涯는 헤-겔哲學에 充實하는 同時에 이 哲學에 새로운 內容을 附加함에 잇섰다. 그가 헤-겔哲學에 充實을 다한 理由는 헤-겔哲學이 그에게 對하야 單純한 理論的 □□ 以上이었던 까

답이었다. 그는 헤-겔의 原書을 만히 읽지 못하~~야~~다 하지만 그는 熱狂的인 辨證法論者임에 틀림이 없었다. 왜 그런고 하니 世界史的 人間을 目標로 하고 모든 世界, 모든 矛盾, 모든 盲目的 必然을 止揚하라고 한 것이라든지, 또는 反逆의 衝動은 그의 □□한 本質이었든 까닭이다. 反動的인 現存 世界狀態를 ××하고서 自己의 理想을 實現하기 爲하여 空間上 何等의 限界도 □□치 않는 革命的 狂□는 到處에서 물결치고 잇섯다고 바쿠닌은 말하얏섯다. 그는 참으로 狂暴한 辨證法論者요, 情致上 乃至 헤-겔主義 一般의 歷史 上에까지 커다란 印을 찍은 가장 □□的인 青年 헤-겔主義者였다. 傳統과 理性和 歷史的 社會的 □□와 道德的 革命法의 拘束을 버서나서 思辨哲學을 最後까지 徹底~~시킨다~~는 두말할 것 업시 바쿠닌 한 사람이었다. 그는 辨證法에 依하여 □神의 □□的 自己意識 過程에서 實現하는 一大□□을 □□하얏슬 뿐 아니라 또 □大한 世界××와 世界救濟의 □□을 노흔 사람이었다. 바쿠닌은 헤-겔哲學에 잇서서의 모든 否定原理의 □□□였스며 必然과 否定의 苦痛 卽 一言□□之하면 眞理에 醉한 人間이었스며, 헤-겔現象學 中에도 「박카스精神」의 一簡에서는 가장 만~~한~~ 感銘을 바덧섯다.